

沈從文的 여성 교유(交遊)와 여성형상*

안승웅**

【목 차】

1. 들어가며
2. 여성과 거리 두기
— 소녀와 악녀에 대한 기억
3. 여성의 입장에서 세상 바라보기
— 친구와 연인, 두 여인을 위한 헌사
4. 현실과 상상 속의 여인사이에서의 새로운 모색
— 생명의 순간 포착
5. 맺으며

1. 들어가며

沈從文에게 있어 작품 속 여성형상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沈從文의 향토소설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창조해낸 여성형상의 성공에 힘입은 바 크기 때문이다. 翠翠, 三三, 蕭蕭가 없는 『邊城』, 「三三」, 「蕭蕭」와 같은 대표작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향토소설 뿐 아니라 도시를 제재로 한 소설에도 沈從文은 동시대의 어느 작가보다 유난히 여성 주인공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 『鳳子』, 「紳士的太太」, 「如蕤」 등과 같은 沈從文의 또 다른 대표작들도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거나 작품의 주제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沈從文 소설 속 여성형상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건강한 생명’의 예찬이라는 다소 한정된 몇 가지 주제에 치중되어 진행되어 왔었다.¹⁾ 최근에는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B5A07037904)

** 부산대학교 시간강사 (xiong01@hanmail.net)

1) 이러한 경향은 초기 沈從文 연구가들이 沈從文 문학의 가치를 자연, 생명 등에서 찾으려 했던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凌宇의 『從邊城走向世界』, 韓立群의 『沈從文論』 등은 湘西자연환경

湘西지역의 문화적 배경, 작가의 성장환경, 여성관, 심리 등의 측면에서 여성형상을 살펴보려는 새로운 시도가 있기는 하다.²⁾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여전히 부족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沈從文은 그의 창작생애 동안 적지 않은 여성을 만났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과의 교유가 여성형상 창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자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沈從文의 여성교유에 대한 연구가 沈從文 소설 속 여성형상 연구에 새로운 시야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선, 우리는 沈從文이 자신의 창작 10년을 회고하면서 쓴 「水云」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너는 햇별이 대지에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잉태시키고, (그 생명은) 얼마나 다양한 형식을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겠니? ‘여인’이라 불리는 수많은 생명이 어떠한 특정 상황 아래에서 너의 생명에 빛을 더하고 너의 마음을 얼마나 들뜨게 하였는지 알 수 있겠니? 그 햇별 아래에서 성장 중인 그 어떠한 생명이 언젠가 너를 지배하고 너를 완성할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니? 이 모든 걸 넌 전혀 모르는 게야!³⁾

내면의 자아와 서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씌어져 있고, 생명, 형식, 마음 등과 같은 추상적 언어가 가득하여 난해하기조차 하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짚어 살펴보면, ‘여인’이 작가 자신의 창작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든 것을 ‘우연’과 ‘정감’에 맡겨야만 (소설의 창작이) 실현될 수 있으니, 나는 또 다른 ‘우연’의 통제를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⁴⁾라는 작가의 또 다른 말에서 확인이 된다. 즉, 沈從文의 창작은 여성과의 교유를 통해 이루어졌고 또 작품 속 독특한 여성형상은 바로 이들 교유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沈從文의 작품세계를 이해하고 여성형상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서 여성과의 교유 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沈從文의 창작 생애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시기는 1925년에서 1927년까지의 습작기이며, 둘째 시기는 1928년에서 1937년까지의 창작 전성기이며, 셋째 시기는 1937년에서 1949년까지의 창작 성숙기이다.⁵⁾ 이 세

과 생명사상이 沈從文 소설 창작, 특히 인물형상 창조에 있어 지니는 의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같은 맥락의 최근 글로는 「沈從文女性敘事的生態內蘊」(劉文良(2007), 『文學研究』), 「沈從文女性形象中蘊藏的鄉土」(津守陽(2008), 『文藝理論與批評』) 등이 있다.

2) 예를 들어 「沈從文的女性觀對其創作的影響」(包訓英(2004), 『求索』), 「沈從文女性崇拜的心理探微」(李光輝(2008), 『安徽電氣工程職業技術學院學報』) 등이 있다.

3) “你能不能知道陽光在地面上產生了多少生命，具有多少不同形式？你能不能知道有多少生命名字叫做‘女人’，在甚麼情形下就使你生命放光，情感發炎？你能不能估計有甚麼在陽光下生長中的生命，到某一時脈來恰恰就在支配你，成就你？這一切你全不知道！” 沈從文, 「水云」, 『沈從文文集』, 凌宇·邵華強 編(1991), 제10권, 花城出版社, p.274.

4) “即將一切交給‘偶然’和‘情感’爲得計。我好像還要另外一種‘偶然’的控制。” 沈從文, 「水云」, 『沈從文文集』, 凌宇·邵華強 編(1991), 제10권, 花城出版社, pp.204-205.

5) 沈從文의 창작시기에 대한 구분은 연구가 마다 다양하다. 하지만 중국 최초의 沈從文 관련 박사학위 논문으로 알려진 凌宇의 『從邊城走向世界』에서 沈從文 창작의 전반기로 1928년을 언급하였고, 1937년 중일전쟁이라는 환경의 변화가 작가의 창작에 끼친 영향이 뚜렷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삼단계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본고는 1928년 沈從文이 北京에서 上海로 옮긴 후 丁玲과의

시기에 沈從文이 교유하였던 여성들로는 湘西지역 여성, 문우 丁玲, 부인 張兆和 등이 있는데, 이들이 소설 창작에 끼쳤던 영향은 시기별로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는 沈從文의 여성 교유가 시기별로 ‘소녀/악녀’, ‘친구/애인’, ‘현실 속의 여인/상상 속의 여인’이라는 성격이 서로 상호 대비되는 여성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주목하였다. 다시 말해 沈從文의 창작시기별 여성교유가 지닌 특이점을 시기별 여성형상이 지니는 특징과 결부시켜 살펴봄으로써, 여성형상의 창조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것이다. 본고의 이러한 탐색은 沈從文의 소설 창작생애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게 할 것이며, 소설 속 여성형상에 관한 연구에 다양한 관점과 새로운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여성과 거리 두기 — 소녀와 악녀에 대한 기억

沈從文의 첫 번째 창작 시기는, 北京에서 첫 작품을 발표한 1924년부터 시작하여 上海로 거주지를 옮기게 된 1927년 말까지이다. 이 시기에 발표되었던 작품들은 대부분 고향이나 군대에서 겪었던 일상적인 일들을 회고하거나 도시생활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단순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성형상이 나오는 작품으로는 「篁君日記」, 「十四夜間」, 「嵐生同嵐生太太」, 「晨」, 「或人的家庭」, 「或人的太太」, 「獵野豬的故事」, 「雪」, 「老實人」, 「玫瑰與九妹」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작품수도 많지 않으며 여성형상의 작품 속 역할 또한 크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점은 대부분의 여성형상이 작중화자의 눈에 관찰되는 피사체에 불과하고 작중화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여성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고 또 이야기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沈從文 소설의 일반적인 경향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이 시기 여성형상의 작중 역할이 이처럼 미미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첫 번째 창작 시기라서 창작기교가 성숙되지 않았고, 작가 특유의 창작 스타일이 정착되기 전이었다는 이유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 沈從文의 여성교유를 살펴보면 이 시기 여성형상이 지니는 특징은 창작 기교나 스타일 상의 문제로 단순히 귀결할 수 없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작가가 당시에 교유하였던 여성에 대한 기억과 인상이 작가 스스로 여성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도록 하였고 이것이 여성형상의 창조에 영향을 준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 沈從文의 창작에 영향을 주었던 여성은 한 둘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자전과 당시 창작을 참고하면 크게 세 명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 중 두 명은 沈從文이 본격적으로 문학 활동하기 전 湘西지역에서 만났던 여성들이며, 나머지 한 명은 1925년 北京에서 처음 만나 이후 반세기 이상 은원관계를 유지한 문우 丁玲이다.

먼저 沈從文 문학 창작 이전 湘西지역에서 만났던 馬氏 성의 여성을 살펴보자. 이 여성은 沈從文의 자전에도 언급되는 여성으로서, 沈從文이 湘西 芷江縣에서 세금징수 일을 할 때 만

관계가 단순한 고향친구에서 문학적 동료로 더욱 밀접해졌다는 점, 그리고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 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沈從文이 부인 張兆和와 떨어져 살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삼단계를 따르고 있다.

난 馬澤淮라는 청년의 누이이다.⁶⁾ 馬澤淮는 沈從文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의 누나를 소개했고, 큰 키에 흰 피부를 가진 여성에게 18세의 沈從文은 곧 사랑에 빠지게 된다. 沈從文은 芷江縣의 유지가 될 수 있는 혼처가 생겼음에도 거절하고 馬氏 성의 여자와 결혼까지 생각한다. 그러나 馬澤淮는 沈從文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沈從文의 모친이 고향 鳳凰縣의 집을 처분하고 맡긴 거금을 빌려서는 중직을 감쳐 버린다. 沈從文의 첫 사랑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버린 것이다.⁷⁾

촌놈처럼 내가 당했다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엄청난 액수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매일 무슨 일을 하든 멍한 상태였다. 매일 해결할 방안을 찾았지만 도망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을 찾지 못 하였다. … … 이 일로 어머니는 반 년 동안 우셨다. 확실하지 않은 곳에 이 돈을 날려 버린 나의 황당한 행동을 용서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연로하신 어머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었다. 나와 같은 이런 촌놈은 성격상 어딜 가든 또 언제든 언제나 도시의 똑똑한 사람들에 당하리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셨던 것이다.⁸⁾

이 일로 면목이 없어진 沈從文은 곧 芷江縣을 떠나야 했으며 결국 고향과 멀리 떨어진 北京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과 관련된 뼈아픈 경험 때문에 北京 생활 초기에 沈從文은 심리적으로 여성에게 신불리 다가갈 수 없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성은 바로 夭妹이다. 夭妹는 沈從文이 군벌 군대에서 문서 수발병으로 있을 때 만났던 여성으로서 원래 비적무리의 두목이었다. 이 여성은 沈從文이 파견 근무 간 군벌 군대에 체포되어 있었는데, 그녀를 차지하려다 군관 몇 명이 서로 죽인 적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였다. 군벌 군대에서 그녀를 바로 처형하지 않은 것은 미모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 여인이 숨긴 총 70정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였다고 한다. 이 당시 沈從文과 알고 지내던 劉雲亭이라는 하급군관이 있었는데, 그는 夭妹와 함께 군벌군대를 탈출하여 총을 찾은 뒤 산채 대왕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루는 劉雲亭은 沈從文에게 감옥에 갇혀 있던 夭妹를 소개해 주었고 沈從文은 여인의 미모에 깜짝 놀란다. 그리고 얼마 후 劉雲亭은 이 여인과 사통하고는 함께 도주하려하려다 발각되고 두 명 모두 사형 당하게 된다.⁹⁾ 沈從文은 나중에 이 사건을 「說故事人的故事」라는 소설로 남기는데, 이것으로 보아 夭妹라는 여성에 대한 그의 인상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나를 알 수 있다. 沈從文은 이 여성을 통해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남자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 요소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팜프파탈 여성에 대한 기억은 앞서 언급한 사기 사건과 함께 沈從文이 여성에 쉽게 다가서지 못하게 한 이유가 되었다 볼 수 있다.¹⁰⁾

6) 沈從文, 『從文自傳』, 人民文學出版社, pp.73-75.

7) 凌宇(1986), 『沈從文傳』, 北京十月文藝出版社, pp.122-126.

8) “我有点明白, 我這鄉下人吃了亏。我爲那一筆巨大數目着了駭, 每天不拘作任何事都无心情。每天想辦法處置, 却想不出比逃走更好的辦法。 … … 爲這件事情我母親哭了半年。這老年人不是不原諒我的荒唐, 因我不可靠用去了這筆錢而流泪; 却只爲的是我這種鄉下人的氣質, 到任何時任何一處總免不了吃城里聰明人的亏, 而想來十分傷心。” 沈從文, 『從文自傳』, 人民文學出版社, p.75.

9) 沈從文(1981), 『從文自傳』,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pp.91-102.

10) 이러한 팜프파탈적 여성에 대한 기억은, 두 번째 시기 작가의 여성에 대한 거리감이 줄어들자 「媚金, 豹子與那羊」, 「醫生」, 「都市一婦人」, 「旅店」 등과 같은 아름다운 비극 이야기로 재탄생하게 된다.

그리고 沈從文의 창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여성으로 丁玲을 빠트릴 수 없다. 丁玲은 沈從文의 고향과 가까운 湖南 臨澧 사람으로서, 『莎菲女士的日記』와 『太陽照在桑乾河』로 유명한 중국의 대표적인 현대 여성작가이다. 丁玲은 沈從文이 오랜 기간 동안 교유하였던 여성으로서, 30년대 이후 沈從文과 恩怨이 교차하는 관계를 수십 년 동안 유지하게 된다.¹¹⁾

北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던 沈從文에게 있어 丁玲이라는 밝고 적극적인 신여성의 개입은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당시 沈從文은 겨우 이십대 초반이었고 이성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나이였다. 따라서 丁玲에게서 고향사람 이상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丁玲 주위의 여성들을 만나면서¹²⁾ 沈從文의 이성에 대한 관심은 더욱 많아졌을 것이다.¹³⁾

그런데 丁玲은 沈從文에게 이성을 상기시켰을 뿐 아니라 이성에 대하여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역할까지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자유분방한 丁玲은 연애초기부터 연인 胡也頻을 정신적으로 괴롭혔는데, 이러한 丁玲을 지켜보면서 沈從文은 湘西에서의 여성경험을 떠올렸을 것이고 더욱더 여성에 선불리 접근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시기 작품 중에는 남녀의 애정문제를 관찰자 시점에서 피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丁玲과 胡也頻을 지켜보았던 당시 생활의 영향이 컸으리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或人的家庭』, 『或人的太太』 등은 남편 혹은 부인이 바람을 피우는 이야기를 구경꾼의 입장에서 적고 있다.

그리고 丁玲은 沈從文과 동향사람으로서 沈從文에게 고향의 가족을 떠올리게 하여 이성문제에 적극적이지 못하게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¹⁴⁾ 이 당시 창작된 『獵野豬的故事』, 『雪』, 『玫瑰與九妹』 등은 고향의 어머니를 떠올리거나 자신의 여동생을 추억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당시 沈從文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그가 北京에서 정착한 후 하루빨리 부양해야 할 대상이었

11) 1920년 대 중반에 시작되었던 沈從文과 丁玲의 교우관계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후 60여 년 간 지속되었다. 20년대 말 沈從文은 사상적 견해 차이로 丁玲과 잠시 소원해진다. 그러나 국민당 정부에 의해 胡也頻이 죽고 丁玲이 납치되자, 沈從文은 끝까지 丁玲을 보호하였으며 친구 이상의 역할을 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沈從文이 반동작가로 몰려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당시 문화부 고위 관직자로 승승장구하였던 丁玲은 물심양면으로 沈從文을 적극 도와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연히 沈從文의 『記丁玲』, 『記丁玲續集』을 읽게 된 丁玲은 1980년 『也頻與革命』이라는 글에서 두 책의 세부사항을 짚어가며 沈從文을 신랄하게 비판하게 된다. 이 이후 沈從文과 丁玲,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죽을 때까지 끝내 화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孫英春·張棟(1993), 『文人相輕』, 國際文化出版公司, pp.173-176.

12) 沈從文, 『記丁玲』, 『沈從文別集』, 劉一友, 向成國, 張兆和 編(1995), 長沙: 岳麓書社, pp.55-57.

13) 그러나 가진 것 하나 없고 소심하기까지 한 시골청년 沈從文이 다가가기에 신여성은 너무 먼 곳에 있었다. 당시 여성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 沈從文의 상실감은 그의 욕망의 크기만큼 컸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老實人』은 작가의 당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생활비를 줄이고 또 공부를 위해 매일같이 도서관에 나가던 自寬이란 청년은 자신이 지은 소설을 읽고 있는 여성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접근한다. 그러나 세련되지 못한 말투와 남루한 옷차림 때문에 치한으로 몰려 유치장에 끌려가게 된다. 소설은 비록 작가의 친구이야기라 적고 있으나 당시 沈從文의 상황과 심정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도시의 현대 여성은 가난한 작가 지망생이었던 沈從文이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이었다. 이는 『十四夜間』에서 나타나듯, 창녀와 같은 신분이 비천한 여성이 진정으로 남자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4) 당시 丁玲은 고향에 있던 동생의 죽음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丁玲을 지켜보았던 沈從文은 더욱 더 자신의 고향과 가족을 생각하였을 것이다. 沈從文(1995), 『記丁玲』, 『沈從文別集』, 劉一友, 向成國, 張兆和 編(1995), 岳麓書社, p.65.

다.¹⁵⁾ 그가 마땅히 부양하여야 했지만 위에서 언급한 사기사건 때문에 부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감 및 부담감은 沈從文으로 하여금 여성과의 교유에 몰두할 수 없게 제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丁玲은 沈從文에게 이성을 환기 했지만 여성과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는 역할까지도 하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沈從文이湘西에서 겪은 두 명의 여성과 北京에서 만난 丁玲은 외모 상으로 사랑스러운 소녀이지만 실상은 남자를 파멸로 이끌거나 뼈아픈 기억을 상기시키는 악녀들이었다.¹⁶⁾ 이러한 소녀와 악녀라는 이중성을 지닌 여성과의 교유 경험 때문에 沈從文은 여성에 다가서고 싶었지만 거리를 두고 관찰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원거리 피사체와 같이 개성이 부족한 여성형상의 창조로 이어지게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창작경향은 沈從文이 여성과의 거리를 회복하고 나서야, 다시 말해 문우 丁玲의 삶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張兆和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나서야 점차 변화하게 된다.

3. 여성의 입장에서 세상 바라보기 — 친구와 연인, 두 여인을 위한 헌사

북방군벌의 위협을 피하고 본격적인 문학 활동을 위해 1928년 沈從文은 北京에서 上海로 거주지를 옮기게 된다. 이때부터 두 번째 창작시기가 시작되며, 이 당시 沈從文이 문단에서 직면하게 된 것은 사회의 각종 이데올로기였다. 유학과 젊은 지식인들의 설익은 사회사상은 정규 학업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沈從文이 심정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 上海에서 192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혁명문학 논쟁은 沈從文으로 하여금 지식인 주도의 이데올로기 논쟁을 더욱 기피하게 하였다. 결국 沈從文은 당시 지식인과 다른 제 3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회적 존재가 아닌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 시기에 발표되었던 沈從文의 대다수 대표작들이湘西지역의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이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서 잘 알 수 있다.

두 번째 시기는 沈從文 창작의 전성기로서, 대표적 여성형상 또한 거의 이 시기에 창조되었다. 여성형상의 수가 많아 졌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시기에는 관찰의 대상에 불과했던 여성이 작품의 전면에 등장한다. 「三三」, 「蕭蕭」, 『鳳子』, 「如蕤」 등과 같이 작품명이 여성의 이름이거나 『邊城』, 「一個女人」, 「三個男人和一個女人」, 「阿黑小史」, 「媚金, 豹子與那羊」, 「一個母親」, 「都市一婦人」, 「一個女劇員的生活」, 「紳士的太太」 등처럼 여성이 주인공인 작품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리고 아예 여성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작품도 있다. 「三個女性

15) 이는 1927년 沈從文의 모친과 여동생 沈岳萌이湘西에서 北京으로 와 함께 거주하였다는 것에서 살펴볼 수 있다. 糜華菱 編(1998), 『沈從文生平年表』, 北岳文藝出版社, p.24.

16) 옴은 집단무의식과 원형을 설명하면서 남성의 무의식 세계에 잠재되어 있는 여성적인 요소에 주목하였고 이를 아니마라 하였다. 아니마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표상되는데 어머니, 악녀, 소녀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소녀와 악녀에 대한 沈從文의 기억은 남성의 무의식 세계에 잠재되어 있는, 태고부터 누적되어 온 여성에 대한 기억과도 관련이 있다 하겠다.

」은 세 여성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고, 「白日」 같은 경우는 남성 작가가 썼을 것이라고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어린 여자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여성형상의 창조 면에서의 이러한 큰 변화는 당시 沈從文이 교유하였던 여성의 영향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두 번째 시기 沈從文은 앞 시기와는 다르게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들과 교유하였는데, 이것이 그의 창작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여성과의 교유를 통해 여성의 복잡한 내면세계를 이해하고 그녀들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부터 비로소 개성이 넘치는 여성형상이 창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沈從文의 창작에 이처럼 영향을 주었던 여성은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北京에서부터 문학 활동을 함께 하였던 丁玲이며, 또 한 명은 沈從文의 부인 張兆和이다. 이들 여성과의 교유가 많았을 때 창작이 가장 왕성하였고 여성형상 또한 많았음이 이를 증명해 준다.

먼저 丁玲에 대해 살펴보자. 앞서 살펴본 대로 丁玲과 沈從文의 관계는 밀접하다. 沈從文은 1927년 12월 北京에서 上海로 옮겨 왔고 다음해 1928년 7월에 丁玲과 胡也頻 부부 또한 上海로 내려왔다. 10월에 세 명은 함께 紅黑출판사를 차려 같은 건물에 살면서 문학 활동을 하였다. 1931년 胡也頻이 국민당에 의해 희생당하고 丁玲이 위협에 처하게 되자 沈從文은 위협을 무릅쓰고 한 달이나 되는 긴 시간동안 丁玲과 그녀의 아이를 보호하여 丁玲의 고향집에 직접 데려다 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北京에서보다 더 가까이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沈從文은 丁玲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丁玲, 胡也頻 부부가 추구하고자 하였던 사회주의 문학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⁷⁾

사실 남방 사람의 단순하고 용감한 열정이었을 뿐이지 이성적인 선택의 결과는 아니었다. 다만 혁명의 진전을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일련의 ‘군사보고서와 농공업 분야 혁명 역량에 대한 통계’에 미혹되었던 것이다. ‘희망찬 미래에 대한 동경’에 동요되었기 때문에, 사회혁명의 명확한 공식이 그의 판단력을 조금 흐리게 했을 따름이었다.¹⁸⁾

좌익문학은 출판업계나 많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미 한 물 간 것이어서, 무릇 똑똑한 사람이라면 다시는 떠들썩하게 참가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학에서의 좌익’은 이미 유행이 지난 구호인데, 두 사람은 지금에 와서 이러한 철지난 테마를 살피고 있었으니, 잘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의아한 일이었던 것이다.¹⁹⁾

17) 이 당시 선명한 정치적 관점을 가지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이었던 丁玲이 沈從文에게 문학적으로 일정한 영향을 끼쳤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沈從文이 丁玲과 함께 문학 활동을 하였던 시기에 「夜的空間」, 「節日」, 「黃昏」, 「腐爛」등과 같은 당시 중국사회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작품이 많이 창작한 것에서 알 수 있다.

18) “實在還只是一種南方人單純勇往的熱情，並非出于理知的抉擇。不過由于過分相信革命的進展，爲一束不可爲據的“軍事報告與農工革命勢力統計”所迷惑，爲“明日光明的憧憬”所動搖，徹底的社會革命公式把他弄得稍稍糊塗罷了。” 沈從文，『記丁玲』，『沈從文別集』，劉一友，向成國，張兆和 編(1995)，岳麓書社，p.193.

19) “左翼文學從商人看來，從多數人看來，仿佛已過了時，大凡聰明人，皆不會再去參加熱鬧了。”文學左翼“在是時已經是個不時髦名詞，兩人到這時節還檢取這樣一個過時的題目，在熟人看來恐怕無人不覺得希奇的。” 沈從文，『記丁玲』，『沈從文別集』，劉一友，向成國，張兆和 編(1995)，岳麓書社，p.148.

위의 첫 예문은 胡也頻이 좌익문학에 몰두하게 된 이유를 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두 번째 예문은 丁玲, 胡也頻 부부가 좌익문학에 헌신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을 담고 있다. 즉, 沈從文은 丁玲의 문학적 태도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곧, 沈從文이 자신만의 문학적 세계를 구축하는데 丁玲이 반면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沈從文은 그와 문학적 추구와 다르다고 해서 丁玲을 무시하거나 멀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열정과 여성으로서 그녀가 지닌 장점에 더욱 매료되었던 것 같다. 이는 丁玲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창작을 통해 알 수 있다.

丁玲이 沈從文의 창작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그녀의 애정생활이었다. 丁玲은 胡也頻과의 동거 중에 馮雪峰과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갈구하여 胡也頻과 沈從文을 당황스럽게 하였다. 실제로 丁玲의 이러한 애정행각 때문에 沈從文은 중간에서 원치 않은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丁玲은 胡也頻이 국민당에게 희생당한 지 얼마 안 되어 馮達과 결혼하였다. 1934년 馮達과 헤어진 후 1937년에는 열세 살이나 어린 陳明과 공개적으로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였다. 이러한 丁玲의 복잡다단한 애정의 역사는 丁玲의 정치적 지위와 문학적 성취 때문에 후세에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될 정도로 유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丁玲과 교유하고 있었던 沈從文은 이 시기에 젊은 여인의 외도를 제재로 하고 있는 「或人的家庭」, 「或人的太太」, 「某夫婦」, 「一個母親」 등과 같은 작품을 유난히 많이 발표하였는데, 이는 沈從文이 丁玲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들 작품 속에서는 외도하는 여성에 대한 어떠한 도덕적 비판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외도가 여성의 특권인양 묘사되고 있다. 沈從文에 있어 성은 도덕적 차원의 것이 아니라 생명의 차원이었던 것이다.²⁰⁾ 그리고 이러한 생명의 본능에 충실한 삶은 「旅店」에서처럼 자연의 변화와 함께 시적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검은 고양이네 오늘 특별히 일찍 일어났다. 일어나서 모기장을 거두고 침대 옆의 조그만 창문을 밀어 젖혔다. 하늘엔 별이 가득했고, 뜰 안에 별레소리가 가득했고 찬바람이 불어와 오늘 날씨는 분명 청아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별레 소리는 이슬에 젖은 듯, 별빛도 젖은 듯, 날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이 시간, 얼마나 되는 여인들이 가볍게 노래하며 그녀의 애인을 배웅하며 문 밖의 대나무 숲을 지날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이 때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그와 하룻밤을 즐긴 여인을 동굴로부터 집으로 돌려보낼까! 오늘의 검은 고양이는 정말 평소와 좀 달랐다. 별빛 아래에서 떠올린 것은 바로 평소에 생각지도 않던 남녀관계였다.²¹⁾

20) 이는 대표작 『邊城』에서 翠翠가 車路和 馬路 중에서 馬路를 선택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雨後」, 「柏子」 등과 같은 작품에서 육체적 사랑은 생명의 약동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沈從文의 애정관은 작가 개인의 애정관이나 여성관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자유로운 연애를 중시하는 소수민족의 전통이 남아 있는 湘西전통문화와도 관련이 있다.

21) “黑猫今天特別醒得早，醒時把麻布蚊帳一挂，把床邊小小窗子推開，滿天的星子，滿院子虫聲，冷冷的風吹來使人明白今天的天气一定晴朗。虫聲象爲露水所濕，星光也象濕的，天气太美麗了。這時節，不知正有多少女人輕輕的唱着歌送她的情人出門越過竹林！不知有多少男子這時聽到鷄叫，把那与他玩嬉過一夜的女人從山峒中送轉家去！……今天的黑猫真有点不同往常，在星光下想起的却是平時不曾想到的男女事情。” 沈從文，「旅店」，『沈從文文集』，凌宇，邵華強 編(1991)，제8권，廣東：花城出版社，p.305.

여관주인인 검은 고양이는 새벽에 아름다운 자연현상을 바라보다 문득 자신에게 내재한 생명의 약동을 느낀다. 그리고 손님 중에서 제일 건장한 사람 하나를 유혹하고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된다. 작품의 말미에 검은 고양이와 잠자리를 했던 손님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었음이 드러나는데, 그래도 검은 고양이는 여관에서 허드레 일을 하는 곱사등이 남자와 함께 아기를 키우며 열심히 살아간다. 이러한 애정에 있어 주도적이며 생활력이 강한 여성의 모습은 여러 측면에서 丁玲의 모습과 오버랩된다.

즉, 沈從文은 혁명 투사로서의 丁玲보다 인간으로서의 丁玲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丁玲과의 교유를 통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탐색을 진행하면서 沈從文 특유의 문학세계가 공고화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沈從文으로 하여금 자연적 존재로서 인간 본연의 모습에 더욱 더 몰입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沈從文이 張兆和를 만난 후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된 일이었다.

張兆和는 安徽 일대에서 대부호로 알려진 張吉友의 셋째 딸로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신식교육을 받았고 1932년 吳淞中國公學대학 영문과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중학교 교사, 『人民文學』 편집 등을 역임하였다. 1941년부터 문학활동을 시작하였고 소설집 『湖畔』이 있다. 문학적으로도 뛰어나, 沈從文문학의 비평가이자 문학적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沈從文과 張兆和의 첫 만남이 있었던 것은 1929년 吳淞中國公學에서였다. 당시 沈從文은 吳淞中國公學에서 중국문학을 가르치고 있었고, 張兆和는 영문과를 다니고 있었던 학생이었다. 沈從文은 교정에서 우연히 張兆和를 처음 만났고 곧 사랑에 빠졌다. 張兆和는 처음에는 스승과 학생간의 사랑을 거부하였다. 沈從文이 지속적으로 연애편지를 써 보내고 사귀지 않으면 자살까지 한다는 소문이 나자 당시 학교장이었던 胡適을 찾아가 沈從文을 말려줄 것을 부탁하기도 한다. 하지만 胡適이 오히려 沈從文을 두둔함으로써 張兆和의 마음은 조금 돌아서게 된다.²²⁾ 그리고 沈從文의 열렬한 구애를 결국 받아들이고 1933년 그와 결혼을 하게 된다.

사실, 湘西 시골 출신에 가진 것 하나 없고 정규 교육조차 받지 못하였던 沈從文이 강남 명문가 셋째 딸의 사랑을 쟁취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소설 같은 사건이었다. 미모까지 뛰어났던 張兆和에게 일찍이 수많은 구혼자들이 있었는데, 張兆和는 그림 동화에 나오는 개구리 왕자에 빗대어 이들에게 개구리 1호 개구리 2호라고 번호를 붙이곤 했었다고 한다. 張兆和의 언니 장윤희의 말에 따르면 沈從文은 개구리에 속하지도 못한 두꺼비 13호였다고 한다.²³⁾

개구리도 아닌 두꺼비에 불과 했던 沈從文이 張兆和의 사랑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그의 문학적 재능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간단한 한 구절로 시작되었던 沈從文의 연

22) 凌宇(1986), 『沈從文傳』, 北京: 北京十月文藝出版社, p.258.

23) 王小歡, 「沈從文的婚外情: 靈魂曾出軌 蜜月寫悲劇」, 人民網
<http://history.people.com.cn/GB/205396/14214449.html> (검색일: 2015.05.30)

애편지는 갈수록 두꺼워져 갔고,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張兆和도 점차 자기도 모르게 장문의 연애편지를 감상하고 또 기다리게 되었다 한다.²⁴⁾ 그리고 沈從文은 張兆和를 의식한 창작을 하게 된다. 이 시기 沈從文의 창작은 張兆和를 위한 구애활동처럼 보일 정도로 곳곳에서 張兆和의 그림자를 찾을 수 있다. 대표작 『邊城』의 여주인공 취취가 張兆和를 모델로 하였던 것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²⁵⁾ 「三三」의 여주인공의 이름이 삼삼인 것도 張兆和가 셋째 딸인 것과 관련이 있다. 「三個女性」에서는 黑鳳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黑鳳은 피부가 검었던 張兆和의 별명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표작 『月下小景』 또한 沈從文에게 정신적 지지를 해준 張兆和의 남동생을 위해 창작되었던 것이다.²⁶⁾

그런데 여기서 보다 중요한 점은 張兆和가 沈從文의 소설 창작에 동기나 소재를 제공하였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沈從文 특유의 문학세계를 구축하고 그만의 독특한 여성형상을 창조하는데 張兆和가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우선 張兆和의 연애평정에서 沈從文은 자신만의 문학세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沈從文은 호적의 지지에 부응하고 張兆和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문학적 성공을 거두어야만 했다. 특히 정규교육을 받고 외국유학까지 갔다 온 수많은 엘리트 애정 경쟁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들과 대비되는 그만의 문학적 세계를 구축해야 했던 것이다.²⁷⁾ 그리고 그 결과 창조된 것이 농촌의 인정과 자연의 생명이 넘치는 沈從文 특유의 향토소설이었다. 沈從文이 張兆和를 열렬히 추구하던 1929년 후반기에서 33년 초에 이르는 이 시기에 湘西를 배경으로 하는 대표작 「三三」, 「蕭蕭」, 『鳳子』, 「丈夫」, 「阿黑小史」, 「黔小景」 등이 창작되었다. 그리고 그가 결혼한 다음해 1934년 1월부터 대표작 『邊城』이 연재되기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沈從文이 張兆和의 사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沈從文 소설 특유의 여성형상이 창조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랑에 빠진 沈從文은 여성형상 창조 때 자연스럽게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 여성상을 투영하였는데, 이로써 순수하며, 지혜로우며, 포용적이며, 활발하며, 생명력 넘치는 湘西 소녀가 탄생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湘西 소녀의 개성은 구체적인 사건이나 행동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湘西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하나 되어 드러난다는 점이다. 『邊城』의 翠翠는 다동 마을을 돌아 흐르는 강물과 하나 되어 있으며, 「蕭蕭」의 蕭蕭는 花狗가 부르는 山歌가 울려 퍼지는 깊은 산속의 작고 귀여운 야생동물과 같으며, 「三三」의 三三은 연자방앗간 위 저수지 속 못 생명들의 주재자처럼 묘사되고 있다. 즉, 張兆和를 위한 사랑이 고향湘西에 대한 사랑과 결합하여 沈從文 향토소설 특유의 개성 있는 여성형상이 창조되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두 번째 창작시기에 沈從文이 교유한 여성인 丁玲과 張兆和는 친구로서, 그리

24) 凌宇(1991), 『沈從文傳』, 北京十月文藝出版社, p.259.

25) 沈從文, 「水云」, 『沈從文文集』. 凌宇·邵華強 編(1991). 제10권, 花城出版社, p.280.

26) 관련된 글은 『月下小景』 제기에서도 언급되어 있다. 張兆和의 어린 동생 張寶和는 沈從文이 방문했을 때 자신이 모은 돈으로 사이다를 사서 주었고 沈從文은 이때 큰 감동을 받았고 그가 읽을 수 있는 소설을 써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한다. 凌宇(1991), 『沈從文傳』, 北京十月文藝出版社, p.262.

27) 당시 도시 엘리트층을 풍자한 소설로는 「來客」, 「知識」 등이 있다. 「來客」에서는 진짜 주인도 못 알아보면서 집안의 개에게 영어로 말을 거는 지식인의 허영을 풍자하고 있으며, 「知識」에서는 서양에서 배워온 화려한 지식은 중국 농촌의 농부의 지혜만 못 하다고 풍자하고 있다.

고 애인으로서 沈從文에게 풍부한 여성 경험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녀들과의 교유를 통해 여성을 더욱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沈從文 특유의 개성이 넘치는 여성형상 창조로 이어졌던 것이다. 어쩌면 이 시기 沈從文의 많은 작품은 두 여인의 우정과 사랑에 대한 헌사와도 같은 것이었다.

4. 현실과 상상 속의 여인사이에서의 새로운 모색 — 생명의 순간 포착

세 번째 시기는 1937년 중일전쟁과 함께 시작된다. 沈從文의 창작 생애 중에서 가장 다양한 특징을 지닌다. 작가적 명성을 누리고 후배작가들을 양성하는데 힘을 썼고, 자신의 창작에 있어 새로운 시도를 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창작 전체 측면에서 볼 때 작품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미완성작²⁸⁾이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 창작 자체에 몰입하지 못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여성형상은 「主婦」, 「王嫂」, 「雪晴」에서처럼 아주 현실적이며 일상적 인물로 그려지거나 아니면 「看虹錄」, 「摘星錄」에서처럼 너무나 개성적어서 실체를 알 수 없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즉, 너무 현실적이고 평이하다거나 너무 개성적이고 모호하다는 상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長河』의 夭夭를 제외하고는 蕭蕭나 翠翠, 三三, 黑貓와 같은 개성적 여성형상은 많지 않다.

이러한 세 번째 시기 여성형상의 특징은 결혼 후 가정이라는 현실생활 속에서 沈從文의 여성 교유가 이전과 많이 달라졌고 여성과의 교유가 이전만큼 그의 여성형상 창조에 직접적인 동기가 되지 못했었던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沈從文은 결혼 후, 새로운 환상을 촉발하고 창작의 동기가 되었던 ‘우연’을 더 이상 자유롭게 맞이할 수가 없게 된다. 게다가 앞 시기 그에게 뜨거운 창작의 열정을 심어주었던 개구리 왕자들의 공주였던 張兆和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전락해버렸다. 沈從文은 자신을 위해 밥하고 빨래하고 또 자식을 키우는데 몰두하는 張兆和를 지켜보면서 감사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성의 속화에 내심 적지 않은 실망을 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沈從文은 이러한 그의 생각을 감추지 않았다.

그가 그녀에 느끼는 신비감이 일상생활 속에서 부식되어 갈수록 사라지고 있음을 그녀는 감지하였다. 그리고 과거생활태도 때문에 습관화되었던 자유롭고 세세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그의 습성이 날이 갈수록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였다.²⁹⁾

28) 『長河』, 『小砦』 등과 같은 장편이 완성되지 못했으며 앞 시기 창작되었던 『鳳子』도 완성하지 못했다.

29) “她發現了他對她那点”驚訝”，好象被日常生活腐蝕，越來越少，而另外一種因過去生活已成習慣的任性處，粗疏處，却日益顯明。”沈從文，「主婦」，『沈從文文集』，凌宇，邵華強 編(1991)，제6권，花城出版社，p.331.

위의 예문은 「主婦」³⁰⁾의 한 부분이다. 「主婦」는 부인 張兆和를 위해 沈從文이 특별히 창작한 소설로서 때로는 부인 張兆和의 시선으로 때로는 작가의 시선으로 그들의 결혼생활의 이모저모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沈從文 자신이며 ‘그녀’는 부인 張兆和이다. 그런데 결혼 후 ‘그’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신비감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음을 ‘그녀’가 느꼈다고 적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곧, 沈從文 자신이 인정할 정도로 부인에 대한 감정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품은 “비록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정말 그러했지만 그는 어땠을까? 그는 그녀의 희망대로 그가 ‘완전히 그녀의 것’이 되길 바랬다. 그러나 어찌해야 완전히 그녀의 것이 되는지 그는 몰랐다.”³¹⁾라고 끝맺고 있다. 즉, 沈從文은 부인 張兆和를 이전처럼 사랑하고 싶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沈從文의 이러한 과감한 고백은, 결혼 후에도 이전과 같이 생명의 불꽃을 일으키고 창작의 열정을 되살릴 새로운 여성을 추구하였던 자신의 한 때 외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작가 특유의 반성문일 수도 있다. 이는 결혼 초기 沈從文 부부의 불화를 야기했던 시인 高青子和 관련된 일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시인 高青子是 본명이 高韻秀이며 福建사람으로 큰 키에 하얀 얼굴을 한 미인으로 알려져 있다. 1933년 熊希齡의 서산 별장에서 沈從文은 高青子를 처음 만났는데, 沈從文은 첫 만남 때부터 자신의 소설을 찬양하며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그녀를 거부하지 못 하였다. 이후 두 사람은 문학 창작을 빌미로 수차례 만났으며, 중일전쟁 기간에는 沈從文이 高青子를 西南聯大 도서관 관리원으로 추천하기도 하였다 한다.³²⁾

沈從文은 高青子の 문학 활동을 적극 도왔는데, 이 일로 張兆和가 고향으로 돌아 가버리는 불화를 겪기도 하였다. 결국 沈從文은 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밝히고 선을 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 한 것으로 보인다. 훗날 張兆和는 이 일을 암시하는 듯한 소회를 적고 있다.

종문이 나와 함께 한 이 한 평생은 과연 행복했을까? 아니면 불행했을까?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완전히 그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나중에 조금씩 이해가 되었지만, 그의 유고를 정리하고 편집하는 지금에 이르러서야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한 평생 짊어 져야했던 삶의 무게가 어떠했는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 과거에 몰랐던 것을 지금은 알게 되었다. 과거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이해가 되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말 드물게 선량했던 사람이었다.³³⁾

30) 「主婦」라는 이름의 작품은 1936년 작과 1946년 작 두 작품이 있다. 두 작품 다 아내를 위해 지은 것으로 작중 상황 및 작자의 심리 상태를 진실 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작품 다 부인 張兆和에 감사해하고 또 자신의 이해해주길 바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31) “雖然她愛他，異常愛他。他呢，願意如她所希望的“完全屬於她”，可是不知道如何一來，就能够完全屬於她。” 沈從文，「主婦」，《沈從文文集》，凌宇，邵華強 編(1991)，제6권，廣東：花城出版社，p.337.

32) 閩客(2012), 「沈從文出軌：戀上文藝青年」，《文史博覽》，2012.12.5., pp.30-31.

33) “從文同我相處，這一生，究竟是幸福還是不幸？得不到回答。我不理解他，不完全理解他。後來逐漸有了些理解，但是真正懂得他的爲人，懂得他一生承受的重壓，是在整理編選他遺稿的現在。過去不知道

沈從文은 명분을 중시하는 유가적 전통을 이은 지식인이었으며, 남에게 상처를 주지 못하는 심성을 가졌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인 張兆和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껴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⁴⁾

결혼이라는 현실과, 도덕적 책임감 그리고 부인에 대한 사랑으로 沈從文은 더 이상 새로운 우연에 기대어 창작의 열정을 되살릴 수는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중일전쟁 발발 후 전시라는 긴급한 상황의 연속은 沈從文으로 하여금 더욱 더 현실에 눈을 돌리게 하여 이전과 같은 여성형상은 창작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長河』의 夭夭나 「小砦」의 桂枝처럼 몇몇 개성 있는 여성형상들 또한 미완성작 속에서 끝내 그 생명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었다.

그런데 중일전쟁 시기 西南聯大란 특수한 상황에서 沈從文은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을 보인다. 서남연대가 위치한 雲南성 昆明은 때로는 일본군의 공습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작가가 사색하기 좋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다. 沈從文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전시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응시할 수 있었고, 이 가운데 상상의 세계에서 새로운 여성과의 교유를 시도한다.

대문 앞에 板石으로 된 길에는 비탈이 있는데, 비탈 위에는 녹색의 나무들이 줄지어 있다. 줄기가 길고 가지가 가는 나무에는 녹색의 잎들이 겹겹이 쌓여, 마치 깃털로 장식한 푸른 화포인양, 깃털로 장식한 일산인양, 깃발인양 하다. 항상 산의 精靈이 있는데, 아름다운 허리에 하얀 이를 하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그녀를 만나는 자는 곧 말문이 막혀 발음이 분명하지 않은 목소리로 걸걸거린다. 사랑은 능히 사람으로 하여금 발음을 분명하지 못하게 걸걸거리게 하며 …… 알 수 없는 말로 죽음을 노래하게 한다. 사랑과 죽음은 이웃한다.³⁵⁾

마치 『九歌·山鬼』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것은 작가의 상상의 세계 혹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자신의 내면의 여성, 즉 아니마³⁶⁾를 만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눈 여겨 볼 부분은 이 아름다운 여성을 만났을 때 사랑과 죽음이 이웃한다는 실존의 비극성을 깨닫게 된다는 점이다. 즉 沈從文은 내면의 여성, 아니마와 만남 속에서 찰나적 생명 자체에 관심을 두게 된다. 그가 문학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였던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 사색하게 되고 그것이 ‘생명’ 추구였음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 것이다.

的, 現在知道了; 過去不明白的, 現在明白了。他不是完人, 却是个稀有的善良的人。” 沈從文, 張兆和(1996), 『從文家書』, 上海遠東出版社, p.319.

34) 沈從文은 “나는 평생 수많은 지역의 길을 걸었고 수많은 다리를 건넜으며 수없이 구름을 바라보았으며 수많은 종류의 술을 마셨다. 그래도 나이가 나와 맞은 한 사람만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면서 張兆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我這一輩子走過許多地方的路, 行過許多地方的橋, 看過許多次數的雲, 喝過許多種類的酒, 却只愛過一個正當年齡的人。” 沈從文, 張兆和(1996), 『從文家書』, 上海遠東出版社, p.36.

35) “大門前石板路有一个斜坡, 坡上有綠樹成行, 長干弱枝, 翠叶積疊, 如翠??, 如羽葆, 如旗幟。常有山灵, 秀腰白齒, 往來其間。遇之者即啞啞。愛能使人啞啞——一种語言歌呼之死亡。“愛与死爲鄰。” 沈從文, 「生命」, 『沈從文文集』, 凌宇, 邵華強 編(1991), 제11권, 廣東: 花城出版社, p.295.

36) 남성의 무의식 세계에 잠재되어 있는 여성적인 요소를 가리킨다. 융에 의하면 아니마는 태고부터 누적되어 온 여성에 대한 기억들이며 모든 남성의 무의식 속에 녹아들어 있다고 한다. 켈빈 S.홀/버논 J.노비드, 김형섭 옮김(2004), 『융 심리학 입문서』, 문예출판사, pp.73-76.

그리고 沈從文은 찰나적 생명을 초월할 영원한 어떠한 것을 자연과 생명의 아름다움 속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것은 여성의 육체가 체현하는 생명의 아름다움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이 시기 창작된 「看虹泉」 이것을 잘 보여준다.

“24시간 안에 있었던 한 사람의 생명형식”³⁷⁾이라는 부제가 붙은 「看虹泉」은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단락에서는 작중화자인 내가 우연히 “신은 우리 생명 속에 있다”³⁸⁾라는 제목이 붙은 기사를 발견하게 되는 경위를 짧게 소개하고 있다. 둘째 단락은 기사의 내용으로 여주인과 남자 손님과의 추상적 대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육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하다. 세 번째 단락은 이 기사를 읽은 나의 소회를 적고 있다. 아래 예문은 여주인과 하룻밤을 지낸 남자 손님이 떠날 때 남기고 간 편지의 일부이다.

백합화는 목이 연약하지만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목과 어깨는 백합화와 아주 닮았어요. 긴 목은 아름다운 머리를 받치듯 약간 뒤로 젖혀져 있지요. 불빛이 희디 흰 이마를 비출 때 마치 한 송이 백합화가 막 피어나려는 것 같습니다. 나는 손이 떨려 감히 꺾지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꽃에서 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소를 지을 때 당신은 피어나는 백합이며 생명은 활기차게 요동칩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침묵 속에서 더욱 더 고귀함이 드러납니다. ……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추상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³⁹⁾

손님은 여주인의 아름다움을 백합에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여주인은 백합과 마찬가지로 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여성이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看虹泉」 속의 이 여주인은 이름도 성도 없는 단지 ‘그녀’로만 존재한다는 점이다. 앞 시기 여성형상처럼 작중역할에 따른 구체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고, 극히 이상적인 여성의 보편적 측면 -생명의 아름다움만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곧 沈從文이 실재인물을 모델로 삼아 여성형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상상 속의 여성이 지닌 한 가지 속성을 언어로써 포착하려 하였던 것임을 보여준다.⁴⁰⁾

37) 一个人二十四点钟内生命的一种形式。沈從文, 「看虹泉」, 『沈從文全集』張兆和 編(2002), 제 10권, 北岳文藝出版社, p.327.

38) 神在我們生命里。沈從文, 「看虹泉」, 『沈從文全集』張兆和 編(2002), 제 10권, 北岳文藝出版社, p.328.

39) 百合花頸弱而秀, 你的頸肩和它十分相似。長頸托着那个美麗頭顱微向後仰。灯光照到那个白白的額部時, 正如一朵百合花欲開未開。我手指發抖, 不敢判攀折, 爲的是我從這個花中見到了神。微笑時你是開放的百合花, 有生命活躍流動。你沉默, 沉默中更見出高貴。……………這一切又只像是一个抽象。沈從文, 「看虹泉」, 『沈從文全集』, 張兆和 編(2002), 제10권, 太原: 北岳文藝出版社, p.339.

40) 생명의 한 순간을 포착하려는 沈從文의 창작의도는 아래의 말에서 확인되는 바이다.

“유성은 번쩍하는 찰나에 지나가버리는데, 바로 이 때문에 일종의 아름다운 신성의 경지를 보여 준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한 번의 미소, 한 번의 찡그림조차 그러한 신성의 경지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 없다. 한 사람의 손, 발, 눈썹, 머리카락이 한순간 나타났다가 어슴푸레한 인상 속에 사라진다고 해도, 조물주의 정교한 솜씨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없다. 무릇 각종 감각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로운 순간을 붙잡은 이는, 그 순간이 생명 속에서 영원토록 불멸함을 알고 있다.”(流星閃電刹那即逝, 即從此顯示一種美麗的聖境, 人亦相同。一微笑, 一皺眉, 無不同樣可以顯出那種聖境。一個人的手足眉髮在此一閃即逝縹緲的印象中, 即無不可以見出造物者之手藝無比精巧。凡知道用各種感覺捕捉住這種美麗神奇光影的, 此光影在生命中即終生不滅。) 沈從文, 「燭虛·五」, 『沈從文文集』, 凌宇, 邵華強 編(1991), 제11권, 花城出版社, p.277.

“나는 지금 미치고 있다. 추상 때문에 미친다. 나는 일련의 부호, 한 조각 형태, 한 줄기 선, 일종의 소리 없는 음악, 문자가 없는 시가를 보았다. 나는 가장 완전한 형식의 생명을 보았는데, 이 모든 것

결론적으로 세 번째 창작 시기에 沈從文은 현실의 여성과 상상 속의 여성을 오가며 새로운 창작의 원천을 모색하였고, 상상 속 여성과의 교유를 통해 범신론적 생명의 탐색과 작가 특유의 공리적 문학관이 돋보이는 이 시기 특유의 문학세계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5. 맺으며

沈從文의 소설 창작은 시기별로 소녀/악녀, 친구/애인, 현실 속의 여인/상상 속의 여인이라는 성격이 서로 상호 대비되는 여성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고는 이것에 주목하여 沈從文의 창작시기별 여성교유가 지닌 특이점을 시기별 여성형상이 지니는 특징과 결부시켜 살펴봄으로써, 여성형상의 창조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창작시기 沈從文 소설 속의 여성형상은 대부분 남성작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피동적인 피사체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沈從文이 문학창작을 시작한 당시 그가 교유하였던 馬氏 여인, 夭妹 그리고 丁玲의 영향이 크다. 마씨 여인은 沈從文이 결혼까지 생각한 대상이었으나, 이 여인 때문에 沈從文은 전 재산을 사기 당한다. 夭妹라는 산적 여두목은 미모로 많은 남성을 유혹하나 결국 자신은 물론 상대방까지 죽음으로 이끌어 가는 존재이다. 丁玲은 沈從文에게 여성에 대한 감성을 이끌어내지만 동시에 보잘 것 없는 작가지망생을 자각하게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여성들은 소녀라는 긍정적 이미지 속에 악녀라는 본성을 감추고 있는 여성들로서 창작초기 沈從文의 여성형상 창조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시기 沈從文 소설 속 여성형상은 풍부하고 다양하다. 여성이 주인공일 뿐 아니라 여성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작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학적 특징은 이 당시 沈從文이 교유한 丁玲과 張兆和의 영향이 크다. 沈從文은 丁玲의 애정생활을 참고로 하여 많은 애정소설을 창작하였는데 여기서 丁玲의 개방적인 애정생활에 대하여 어떠한 도덕적 비판을 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沈從文 특유의 애정관 및 여성관에 기반 하여 丁玲을 옹호한다. 張兆和는 沈從文이 사랑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여인이다. 이 시기 沈從文의 많은 창작이 그녀를 위한 구애작업이라 할 정도로 沈從文 소설 속 여성형상에 끼친 영향이 크다. 沈從文은 張兆和와의 연애편기에 그 특유의 여성형상을 창조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만의 湘西 문학세계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沈從文의 소설 창작은 친구와 연인에게 바치는 우정과 사랑의 헌사였던 것이다.

세 번째 시기 沈從文 소설 속 여성형상은 한편으로는 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하거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 추상적이고 난해하다는 상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여성형상의 특

은 추상 속에서 울연히 존재하나, 실제 앞에서는 오히려 모두 소멸해 버린다.”(我正在發瘋。爲抽象而發瘋。我看到一些符号，一片形，一把線，一種無聲的音樂，無文字的詩歌。我看到生命一種最完整的形式，這一切都在抽象中好好存在，在事實前反而消滅。) 沈從文, 「生命」, 『沈從文文集』, 凌宇, 邵華強 編(1991), 제11권, 花城出版社, p.295. 我正在發瘋。爲抽象而發瘋。我看到一些符号，一片形，一把線，一種無聲的音樂，無文字的詩歌。我看到生命一種最完整的形式，這一切都在抽象中好好存在，在事實前反而消滅。沈從文, 「生命」, 『沈從文文集』, 凌宇, 邵華強 編(1991), 제11권, 花城出版社, p.295.

징은 결혼이라는 현실, 그리고 전쟁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이전 시기처럼 여성과의 교유가 그의 창작에 직접적인 동기부여를 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다. 결혼이라는 현실 속에서 沈從文은 이전과 같은 창조적 영감을 얻지 못하고 잠시 방황한다. 그리고 중일전쟁 시기 서남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沈從文은 자신의 내면의 여성 즉 아니마와 조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沈從文은 생명의 찰나적 의미에 천착하게 되고 그의 문학적 작업은 생명의 순간 포착이라는 추상적 특징을 지니게 된다. 즉, 이시기 沈從文은 현실과 상상 속의 여성 속에서 새로운 모색을 하게 되고, 결국 다소 난해하고 추상적이라는 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작가 자신이 줄곧 그려왔던 생명의 약동과 아름다움을 영원히 포착하기 위한 창작에 몰두하기에 이른다.

결론적으로 여성과의 교유와 여성형상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沈從文이 직접 밝힌 바 있는 창작에 있어 우연 - 여인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沈從文의 창작 경향은 시기별로 그가 교유하였던 여성들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었고, 여성 형상 또한 그가 교유한 여성들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沈從文 소설 창작 상의 특징은 에코페미니즘이나 성 심리학 등과 같은 방면에서 沈從文의 문학세계 및 여성형상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연구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이는 다음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 켈빈 S.홀·버논 J.노비드, 김형섭 옮김(2004), 『용 심리학 입문서』, 문예출판사.
 沈從文, 『從文自傳』, 人民文學出版社.
 沈從文, 「主婦」, 『沈從文文集』, 凌宇·邵華強 編(1991), 제6권, 花城出版社.
 沈從文, 「旅店」, 『沈從文文集』, 凌宇·邵華強 編(1991), 제8권, 花城出版社.
 沈從文, 「水云」, 『沈從文文集』, 凌宇·邵華強 編(1991), 제10권, 花城出版社.
 沈從文, 「生命」, 『沈從文文集』, 凌宇·邵華強 編(1991), 제11권, 花城出版社.
 沈從文, 「燭虛·五」, 『沈從文文集』, 凌宇·邵華強 編(1991), 제11권, 花城出版社.
 沈從文, 「看虹泉」, 『沈從文全集』, 張兆和 編(2002), 제 10권, 北岳文藝出版社.
 沈從文, 『記丁玲』, 『沈從文別集』, 劉一友·向成國·張兆和 編(1995), 岳樂書社.
 沈從文, 張兆和(1996), 『從文家書』, 上海遠東出版社.
 凌宇(1986), 『沈從文傳』, 北京十月文藝出版社.
 孫英春, 張棟(1993), 『文人相輕』, 國際文化出版公司.
 糜華菱 編(1998), 『沈從文生平年表』, 北岳文藝出版社.
 閩客(2012), 「沈從文出軌：戀上文藝青年」, 『文史博覽』, 2012.12.5., pp.30-31.
 王小歡, 「沈從文的婚外情：靈魂曾出軌，蜜月寫悲劇」, 人民網
<http://history.people.com.cn/GB/205396/14214449.html> (검색일: 2015.05.30.)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한글	沈從文, 소설, 여성교유, 丁玲, 張兆和, 소녀, 악녀, 친구, 연인, 현실속의 여인, 상상 속의 여인
	영문	Shen cong wen, novel, female association, Ding ling, Zhang zhao he, girl, wicked women, friend, lover, women in reality, imaginary women.

**A study on the female association and figure appeared
on the works by *Shen cong wen***

Ahn, Seung-Woong

This study aims to survey the creation process of female figure as a whole by linking features of female association depending on Shen cong wen's creation perio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female figures of each time.

Female figures at the first creation period are, in many cases, just passive subjects looked into the eyes of the male writer. This is largely because of a woman named Ma, Yao Mei, and Ding ling, who were those Shen associated when he first started writing literatures. They were women who hid their true colors of wicked women under the veil of positive image of girl and seem to have a huge impact on the creation of female figures by Shen at the initial stage of his literature creation process.

At the second period, female figures in his literatures are varied and colorful. There are novels in which a woman is a main character and stories, in many cases, are delivered from a point of view of a woman. Ding ling and Zhang zhao he associating with Shen at that time had a great impact on this. Literatures by Shen in this period were a dedication for the love and friendship with friends and lovers.

Female figures at the third period have contradictory characteristics; sometimes it is too ordinary and plain, and others it is too abstract and difficult. This is related to the fact that the association with women did not directly motivate his creation at that time due to the reality called marriage and a special circumstance: war. But, in this period, he was absorbed in creation to capture the lively motion and beauty of life that he had constantly envisioned.

In conclusion, by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is association with women and female figures, the author has been able to identify the meaning of coincidence and women when it comes to creation, as the way he had expressed. His creative tendency wa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women he was in association with each time and the female figures did not stray from the shadows of women he was in association with. This feature on the creation of literatures by Shen suggests that his literary world and female figures are to be interpreted and studied in various ways in the fields such as eco-feminism and gender psychology.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안승웅 / 安承雄 / Ahn, Seung-Woong
	소 속	부산대학교 시간강사
	Em@il	xiong01@hanmail.net
	주 소	(생략)
	전화번호	(생략)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5년 4월 30일
	심 사 일	2015년 6월 5일
	게재확정일	2015년 6월 22일